

‘완주·전주 상생비전’ 통합 복지 체계 구축

전주시, 5번째 상생발전 비전 복지분야 제시

전주시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염원하며 완주군에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통합시 총괄 보건소를 완주군으로 정하기로 하는 등 통합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내놓았다.

22일 시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위원장 박진상)에 따르면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교훈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담당 분야 간부공무원과 박진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 브리핑을 통해 복지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5번째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인 복지 분야는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에너지복지 등 전 세대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시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125억 원을 투자해 완주군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기로 했다.

시는 완주군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문화와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

심 시설이 부족한 완주군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수혜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완주 통합시 노인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8%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전주와 완주지역의 노인인구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복지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예산의 증액과 편중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통합시 총괄 보건소를 완주군으로 지정·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완주 통합 이후 관련 법에 따라 3개 보건소(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 완주군보건소) 운영이 가능한 가운데, 시는 완주군보건소를 통합시 총괄 보건소로 지정하고 보건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 이후 완주군 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를 대비한 통합시 보건소의 필수요로 기능 확대를 위해 병원급 보건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2일 전주시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교훈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담당 분야 간부공무원과 박진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 브리핑을 통해 복지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동시에 시는 완주군 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배관 확대 보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도시가스(주)의 타당성 검토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해 기존 도시가스 공급관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일부 지역에는 상하수도 등 정수 여건 개선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완주군 내 근거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완주군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경우 ‘폐기

물시설축진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주민 동의가 없이 이뤄지는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전주 시에서 추진 중인 소각장 신규 건립 사업과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사업은 기존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어 완주지역으로의 이전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와 환경, 생활 인프라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 전주와 완주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시민 안녕·풍년 기원 ‘전주단오’

31일~6월 1일 덕진공원 일원서 행사 개최

우리나라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옷날을 기념해 전주시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전주단오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2025 전주단오’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전주단오 행사는 시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와 신명 나는 풍물놀이, 타악연희원 아귀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전주단오의 전통 프로그램인 △풍년기원제 △전주단오 장사 씨름대회 △창포물 머리감기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단오 행사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세시풍속 및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종지윷놀이, 쌍륙, 고누, 제기차기, 투호) △단오등 소원지 적기 △연꽃등 띄우기 △한복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동시에 올해 전주단오 행사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사장인 덕진공원에 는 전주지역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지킴이 먹거리 부스와 다양한 메



뉴의 푸드트럭이 준비되며, 전통과와 디지털들도 행사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단오 행사에서는 △검무공연 △비보잉서커스 △탈바꿈놀이 △버스킹공연 △LED 미디어퍼포먼스 △불꽃 퍼포먼스 △전주시립국악단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풍성한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덕진공원 내 맘껏술놀이터와 연화정도서관 등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전통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총력

전주시, 우범기 시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

전주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2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우범기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13개 협업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 대응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풍수에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돌입함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운동목 부시장이 주재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부서 대책회의’에서 21개 부서장(팀장)을 통해 부서별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실무 총괄 책임자인 실·국장들이 각 협업기능별 세부 대응계획을 직접 점검하며 대응체계를

정교화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 상황 관리 △긴급 생활 안전 지원 △교통 대책 및 재난지원 지원 △의료 및 방역 서비스 등 13개 협업기능별 세부 대응계획이 공유됐으며 각 기능별 임무와 역할, 매뉴얼 숙지 여부, 초동 대응체계의 즉각적인 가동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뤄졌다.

또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우범기 시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상시 철저한 준비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책무인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상호성 있는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평화1동, 위기 상황 시 정신질환 대응 방안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 평화1동주민센터(동장 김병용)는 22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본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 시 정신질환 대응 방안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화1동은 취약계층 밀집 지역으로 치매, 중독, 부양 기피 등의 원인으로 어르신들의 정신질환이 자기 방임과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했다.

이날 강사는 평화동 소재 바른정신건강상담센터 오상목 센터장으로, 주변의 일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신질환 징후 △위기기상행 행동요령 △위기개입 절차 △사례를 통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위기개입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폭염대비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간담회 개최

전주시가 폭서기를 앞두고 건강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2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장들과 함께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2025년 폭염대비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현재 13개 수행기관과 432명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고령 부부가구 등 약 5900여 명

의 노인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여름철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 각 수행기관장들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조치와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한 폭서기 대응 교육 △이용자 대상 폭염 행동 요령 및 건강 수칙

교육 △폭염특보 발효 시 안전 확인 체계 및 피해사례 보고 절차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지원사를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안부 확인과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대폭 개선

전주시가 시민의 건강권과 아프면 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만15세부터 만65세 미만 전주시 거주자 중 취업자와 전주시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 발생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8일째부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상병수당 제도의 소득인정액 자격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률제 지급 방식이 도입돼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 산정 평균임금의 60%까지 확대해 수당이 지급되며 구체적으로 1일 4만8150원~6만6000원이 지급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